

# 대학의 자유, 민족대학의 자유

김 흥 명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 학문의 자유와 대학

흔히들 학문에는 국적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진리의 구명이란 국가권력의 경계와 무관하게 격물치지, 즉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이란 외부의 호·불호, 간섭을 떠나 오로지 대상으로서 사물의 궁극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며, 관찰로부터 논리적으로 도달되는 결론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대상으로서 사물은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

그렇다고 학문의 존재가 시대와 환경을 떠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현장을 따라 인간도 변화하며, 오히려 학문의 대상인 사물 그 자체마저도 역사사회적 특수성의 가능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곧 진리의 역사적 형식은

사물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적응 과정을 밟는다. 학문의 역사적 발전은 문명의 토대 위에서처럼 대상의 변화형식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학문은 사물의 본질을 구명한다는 숭고한 이상을 벗어나 생산에 종속적인, 그리고 대중소비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양상의 다양화와 확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변모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마침내 학문은 기껏 기성질서의 보수적 미화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상황을 일반화하게 되었다. 학문의 자유마저도 그저 특점의 사회구조가 보장하는 노동분화의 틀 내에서 주어진 자유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학문을 전업으로 하는 지식인, 즉 학문의 주체마저도 시대의 산물임을 말해준다. 대상의 본질, 그것의 변화를 구명하는 대신에 실생활의 편의와 조작된 욕구의 충족을 중심으

로 하는 생산계열에 짜맞추어진 학문의 자기비하는 대중소비시대의 주변에 맴도는 임의적인 장식물로의 전락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역사 사회적 환경으로 태어난 지식인은 처음부터 학문의 자유란 특정환경에 맞추어진 자유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지식인은 역사적 산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구속하는 국경을 가지고 있다. 지식인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역사사회적인 환경으로 표현되는 기성질서의 정당화, 보존의 수단으로 기능할 뿐더러 때로는 오히려 특정질서를 변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구명이 국경의 명제에 충돌할 경우, 지식인은 현실의 요구를 자신의 임무로 발견하는 때가 종종 있게 된다.

부르주아문화의 초기단계에서 학문의 자유는 신앙·신학의 영역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실을 이해하고 인간의 욕구, 물질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출발했다. 그것은 중세봉건적 지식체계의 환상을 벗어나 자연현상의 '자유', 새로운 인식의 영역으로서 인간 개체의 발견 및 그에 기초한 합의와 정당성의 이론을 구축할 부르주아계급의 학문적 자유를 의미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가 가져오는 구속, 기존문화의 제약을 벗어나 진리의 이름으로 '자유'로 이 추구할 권리였던 것이다. 한 마디로 봉건적 질서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이데올로기적 자유 및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전제조건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자유였던 것이다.

동시에 부르주아사회의 정착, 발전과 함께——심지어는 승리의 환상과 함께—— 학문의 성격도 변모했다. 그것은 마침내 부르주아사회

의 본질을 구명하고 이의 착취적 성격, 반인간적 문명의 경향을 밝혀낼 수 있을 만큼 이의 은폐를 목적삼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부르주아 사회의 성립에 요구되었던 학문의 자유는 그와 반대로 진리로부터 폐색된 부르주아이데올로기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그것마저도 스스로의 객관성의 강조 때문에 더욱—— 전략할 운명에 들어섰다.

특히 양대진영으로 나뉜 세계구조는 이제 학문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구조적 왜곡의 길로 이끌었다. 국가이익과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부르주아계급은 엄청난 자금을 대학에 쏟아부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마침내는 그것의 형해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대학은 지배계급의 수단이 되었다. 학문의 자유마저도 국제적 진영의 논리에 따라 반사이익을 노리는 이론을 발전시키고, 필요하다면 반대적 입장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이론의 일부로 수용하게 되었다. 현실의 대립구조는 학문의 자유를 편향적으로 정당화하고 끝내는 반대세력의 고립을 추구하는 현실의 수단으로 축소되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물론 학문의 자유가 완전히 이상의 논의에 제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문의 자유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사회의 본질을 고전적 방식에 따라 문제삼거나 비조직적인 문제의식을 거부하기도 했다.

오늘날 대학과 그에 유사한 연구기관이 더 이상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없음을 대학이 사회성격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는 국제·국내적 권력의 한계와 관련하여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부르주아지배의 초기에 이상향이었던 학문의 자

유가 여전히 향수를 부르게 되었던 것은 학문의 자유를 허구화했던, 대학 현실이 직면했던 환경의 벽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 2. 민족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대학의 자유 없이는 허상일 수밖에 없듯이,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권리로써 현실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대학의 자유는 그 본질상 시공을 떠난 추상적 권리로 주장될 수 없다. 즉, 대학의 자유는 대학 존재가 서있는 역사적 현실과의 관계에서 그 성격이 밝혀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계의 약소민족은 '민족해방'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평화스러운 목가적 삶의 터전을 잃고 제국주의의 침략·병침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던 약소민족은 더 이상 독립적인 정치적 단위로서 20세기를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민족의 의지와 이익은 열강의 그것에 종속된 채 열강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던 나머지 그곳에 세워진 대학제도마저도 외세의 정신과 이익을 앞세우는 '자유'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의 자유는 그것이 속해야 할 민족의 의지와 이익을 오히려 배격하는 그러한 자유를 의미했다. 그것은 민족과 외세의 피할 수 없는 대립·모순 속에서 후자의 보호막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방'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세계의 각 곳에서는 "억압이 있는 곳에는 투쟁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민족해방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이처럼 치절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는 정의의 순수성에 모든 것을 바치려는 청년이 있었다. 대학의 자유는 한 민족을 짓밟고 그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을 담고 있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은 민족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열정과 결의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 민족의 생사가 걸린 기로에서 제국주의의 노예에게 보장된 풍족한 개체적 삶을 거부하고 고통과 형극의 길을 따라 민족해방의 전선에 나선 청년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조국의 아들 딸이었다.

동등한 민족적 발전의 가능성이 차단된 시대에 대학의 자유는 더 이상 부르주아적 자유의 본질인 학문의 자유, 즉 학문을 위한 학문의 자유 그 자체에 탐닉, 안주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선발자본제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역사적 권리를 획득했던, 그러나 피억압민족의 현실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누릴 수 없는 낡은 시대착오적인 자유였던 것이다.

민족의 미래는 청년이 살아야 할 시대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주인인 청년이 민족의 존망, 민족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실인 사회에서 공허한 자유, 역사적 현주소가 없는 대학의 자유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는 청년의 임무, 그들의 어깨에 놓인 역사적 과제는 너무도 진지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학의 자유와 구분되는 민족대학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더 이상 '해방'을 자신의 과제로 가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다시금 대학의 자유로 환원되어야 할 시기 이전에 역사적 권리를 지닌 자유이다. 자유가 정의에 맞는 것일 때 진정한 자유일 수 있듯이,

민족대학의 자유는 한 민족의 자유를 정의의 평형에 올려놓은 그러한 것이다.

민족대학의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민족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고 자주적인 정치적 단위로서 세계질서와 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할 자유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독아에 신음하는 민족해방의 시대에 신기루처럼 떠도는 고상한 국적 없는 자유가 아닌, 민족지상의 자유이다. 민족문제가 가장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 까닭에 대학의 모든 과제와 활동을 이에 종속시키는 자유이다.

제국주의에 주권을 유린당한 민족에게는 민족대학의 자유란 기존질서의 산물일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요구된다. 하나의 사회성격이 민족대학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민족대학의 자유는 민족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의 쟁취를 지상의 과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학은 기성질서의 한 부분으로 기능적인 자기전략을 하는 대신에 새로운 질서, 민족의 공동체를 얻어내는 투쟁의 현장이 되고 만다. 대학의 자유는 민족대학의 자유 앞에서 무력하고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우리 사회의 경우,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의 신화를 가지고 다시금 미·소의 군대에 점령된 정복지가 그 출발점을 이루었다. 외국의 군정, 분단의 고착화에 앞장선 종속엘리트——일본에의 종속이 이제는 미국에의 종속으로 탈바꿈한——의 분단정권의 숨막히는 전 사회적 지배·대리통치는 교육의 종축인 정부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이 모두 민족이익에 무관하게 마비된 의식을 갖도록 주도해왔다. 분단 권력의 감시와 비호 아래 성장을 거듭한 우리

의 대학이 그저 자연발생적으로 민족이익을 옹호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다. 어제의 종속된 곤경에서 오늘은 경쟁잠재국으로 발전한 경제력을 토대로 우리는 민족이익을 새로이 내세울 위기와 조건을 얻게 되었다. 민족의 품 안으로 들어와 민족이익을 옹호하는 학문의 산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용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획일화된 명령체계, 그것도 분단의 노예근성과 3류 수준의 행정력에 의해 주도되는 관 중심의 사고는 곤란하다. 그것은 이제 통용될 수 없다. 분단의 이익을 주입시키고 분단을 영속화하는 수단으로서, 그 결과 민족의 이익을 외면하는 대학으로 남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청년의 열정과 지향을 오직 무지와 징벌의 방식으로 본질을 은폐한 속에서 잠재울 수 있었다. 이제는 대학이 민족의 이익이 무엇인가, 무엇이 민족의 과제로서 제기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하며, 발전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대학의 존재적 자유를 확보하는 일은 역사의 발전에서 뒤늦은 우리에게 세계의 외면 속에서도 확보해야 할 외로운 과업이 되고 있다. 민족이익을 수호한다는 것은 존재의 통일을 발전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과 같다. 분단사회의 발전이 이처럼 민족이익의 과제에 맞추어 지지 않는 한, 그것은 존재의 분열을 강화하는 분단의 발전으로 나아갈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모순은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분단이 발전의 비상한 계기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 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민족의 단일적

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 3. 대학의 자유와 평화

대학의 자유가 확립되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중세의 봉건제사회가 옹호했던 신학과 믿음의 비과학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지식의 탐구를 통해 실생활에 생산적이고자 한 데 있었다. 자유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지식의 도달에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면, 그것은 신흥 부르주아계급의 생산에 도움을 주는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발자본제사회에서 유래한 대학의 자유는 후발사회, 특히 하나의 민족의 존재적 분열, 피억압의 상태, 양대진영의 첨예화한 모순의 한 가운데 위치한 사회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과거처럼 역사적 상황과 물질적 조건이 그에 상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대학의 자유가 민족대학의 자유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한 민족의 현실로부터 왔다. 민족이 역사적 유산으로 상속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역사에 정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유는 민족대학의 자유에 수렴되며, 이를 통해서 민족의 생존을 위한 과제를 자유의 이름으로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현단계는 후발사회의 자기보존을 위해서도 민족대학의 자유를 지상과제로 제기한다. 더구나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민족의 이익이 주변에 머물러왔던 우리 사회는 추상적인 대학의 자유를 민족대학의 그것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족대학의 자유는 민족대학의 존재와

건설 없이는 생취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자립과 자주적인 발전의 필수불가결적인 것이다.

민족대학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으며, 민족의 생존은 민족대학의 건설에 크게 의존한다. 제국주의의 문화식민지이며 상품시장으로 편입된 종속국가가 외세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대학의 캠퍼스 내에서 지속해왔던 것은 민족혼의 명맥을 그나마 지탱해온 대근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대학의 자유, 민족지상적 사고의 편협성을 벗어나려면 세계의 평화가 민족의 평등에 기초한 질서 위에 세워질 것을 전제로 한다. 전 지구적 평화는 억압과 착취의 현실이 배제된 국가간의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대가 있게 될 때까지 민족대학의 자유를 위한 명분은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환언하면 역사의 현재에서 민족대학의 자유는 유효할 뿐더러 후발사회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민족의 단일적 존재, 피억압상태로부터의 해방, 평등한 국제질서의 확립이 있게 되면 민족대학의 자유는 더 이상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대학의 자유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운명에 처한다. 왜냐하면 민족대학의 자유는 더 이상 자신의 민족이익보다도 타민족을 억압할 자유, 즉 강자의 자유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의 말처럼 “그 누구도 남을 억압하고자 자기 자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평등이 실현된 국제질서하에서도 민족이익을 옹호할 필요성은 남는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민족이익의 옹호는 역사적 특수상황이 가

능케 했던 민족대학의 자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적 생산과 시장의 구조에 대한 조정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민족으로서 자주적인 존재를 확보하고 세계 질서에의 평등한 참여를 함으로써 한 민족에게 요구되었던 역사적 권리로서 민족대학의 자유는 더 이상 자신의 국지성, 즉 자기중심적 사고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인류공동체에의 참여와 기여를 통한 발전을 과제로 가지며,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대학의 자유를 필요로 하게 된다.

#### 4. 맺는 말

'진정한' 대학의 자유는 새로운 유형의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이익이나 국가이익을 앞세워 모든 것의 희생을 감내해냈던, 민족대학의 자유도 선발자본제사회의 부르주아지배집단의 봉건적 역사단계나 후발사회에 이식된 근거없는 대학의 자유도 아니다. 새로운 단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문과 과학의 진리를 추구하며, 이러한 지적 고투의 결과물로서 전체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드높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대학의 자유가 '진정한' 것이

되는 이유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제국주의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단일 세계모니의 성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체제인 신국제질서의 태동을 보고 있다. 진정한 대학의 자유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먼 훗날의 꿈으로 남는다. 오로지 현실에 충실하려는 청년의 임무가 민족대학의 자유가 요구하는 지평을 떠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이처럼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이상을 앞당기려는 역사적 분노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데 있다. 진정한 대학의 자유는 오로지 민족대학의 자유가 가리키는 현 단계의 시련을 거쳐서만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대학의 자유, 그것은 사회성격의 계급성이 파괴되고 사회간의 억압과 사회 내의 지배현상이 외변화한 시점에서 그에 참여하는 동시대인의 과제이며 발전시킬 문제이다. ■

김홍명/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러트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 및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연구교수를 지내고 서강대 정외과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국가이론과 분단한국』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자본제시대의 사상』, 『사회주의의 재문제』, 『분단의 우상』 등이 있다.